

###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

## 암 치료기술 발전 맞춘 특약 신설

### 삼성생명

암·순환계질환 치료 핵심보장 하나로 실제 치료 여정 기준 통합보장 확대

삼성생명이 암과 주요 순환계질환 치료 과정 전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한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를 개정 출시했다. 검사부터 치료까지 실제 치료 여정을 기준으로 통합 보장을 확대하고, 최신 의료기술 관련 특약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상품은 암과 주요 순환계질환 치료에 필요한 핵심 보장을 하나의 구조로 묶었다. 새로 마련한 ‘암통합치료(종합병원 이상)특약AT’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영상·정밀검사, 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통증완화치료, 재활치료 등을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비급여 치료 부담을 겨냥한 보장도 강화했다. 삼성생명은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통합치료(종합병원 이상)특약AT’을 통해 로봇수술, 일부 표적·면역 항암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등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영역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뇌혈관·심장질환 등 순환계질환 치료비 부담완화를 위

해 수술, 혈전용해치료, 급여 혈전제거술, 중환자실 치료, 재활치료 등을 보장하는 ‘주요순환계질환통합치료(종합병원 이상)특약AT’도 마련했다.

최신 암 치료기술 확산에 대응한 특약도 눈에 띈다. 최근 방사선 동위원소를 활용한 ‘방사선 리간드 치료’ 등 신의료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표적항암약물·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특약’을 신설해 고액 비급여 항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다. 납입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Samsung Financial Networks

### 삼성생명

## 「The퍼스트 건강보험S」

- ✓ 치료 과정 통합 보장 강화
- ✓ 방사선 리간드 치료 등 최신 의료기술 보장

삼성생명

###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

## 암·뇌·심장부터 최신 치료까지 담아

### 한화생명

분산된 건강보험 라인업, 하나로 통합 13단계 세분화로 다양한 가입유형 제공

한화생명이 암·뇌·심장 진단부터 최신 치료까지 주요 보장을 하나의 상품에 담은 ‘시그니처 H통합건강보험’을 새해 첫 상품으로 선보였다. 보장 영역별로 분산돼 있던 건강보험 라인업을 하나로 통합해, 한번의 설계로 종합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상품은 고객 건강상태와 보장 선호에 맞춘 13단계로 세분화해 유병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이 가입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이후에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유리한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최대 11회까지 유형 조정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최초 대비 약 5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납입면제 범위와 치료비 지원 기능도 넓혔다. 암·뇌졸중·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등 12대 질병까지 범위를 확대한 납입면제형을 갖췄다.

암이나 특정 순환계 질환 치료 과정에서 수술 일정이 확정되면 가입금액의 70%를 먼저 지급하는 ‘치료비 선지급 서비스’를 넣어 치료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최신 의료 환경을 반영한 특약 구성도 눈



에 띈다. 수술 보장을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 근골격계 다빈도 수술 보장 특약 등 척추·관절 질환 관련 특약을 함께 구성해 실제 치료 과정에 맞춘 선택지를 넓혔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다.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장 특약과 암주요치료,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보장 특약 등을 추가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보장별로 분산된 보험을 하나로 통합하고 가입유형을 세분화해 고객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 ‘교보3밸런스보장보험PLUS(무배당)’

## 건강·사망·노후 생애주기 맞춤 설계

### KYOBO 교보생명

치료비, 보험료 면제, 연금전환 담아 3대 질환 외에도 치매 관련 보장 강화

교보생명이 사망보장에 3대질환 치료비와 노후 연금 기능을 결합한 종신보험 ‘교보 3밸런스보장보험PLUS(무배당)’를 선보였다. 건강·사망·노후를 생애주기에 맞춰 한 상품으로 설계한 점이 핵심이다.

이 상품은 평생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치료비 보장, 보험료 납입면제, 연금전환 등 3대 보장 기능을 함께 담았다. 종신보험의 보장 영역을 사망 중심에서 치료·노후까지 확장한 구조다.

특히 보험료 납입완료 후 암 또는 2대질환(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주요치료 시마다 가입종형에 따라 가입금액의 30%(1형) 또는 20%(2형·3형)를 최

대 10년간 반복 보장한다. 암주요치료는 암 수술·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를, 2대 질환 주요치료는 수술·혈전용해치료·중환자실 치료 등을 포함한다.

치매 관련 보장을 강화한 점도 특징이다. 3형 가입 시 3대질환 주요치료비 외에도 치매검사, 치매약물치료(급여), 최경도 치매 및 경도알츠하이머 표적치매약물치료 등에 대해 주계약 가입금액 기준 일정 금액을 치료비로 보장한다. 암·특정뇌혈관질환·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보장은 유지된다.

노후보장 기능도 담았다. 납입기간(5·7년 납은 10년) 이후에는 3대질환 주요치료비 보장을 유지한 채 사망보장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금전환 이후 3대질환 진단 시 10년간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하는 구조를 갖췄다.

저해약환급금형으로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은 일반형보다 적은 대신 동일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주형 기자



3대질환 보장으로 더욱 든든한  
교보3밸런스  
보장보험PLUS (무배당)



###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

## 기본연금 3배... 질병 後 부담 줄인다

### 신한라이프

3대질병 중심 생애주기 맞춤 보장 질병 진단 시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

신한라이프가 사망보장에 3대질병 치료비, 간병, 노후 연금 기능까지 결합한 종신보험 신상품 ‘신한(간편가입)종신보험 밸런스핏(Fit)(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선보였다. 한국인에게 발병 비중이 높은 3대질병을 중심으로 고객 생애주기에 맞춘 보장 구조를 강화했다.

이 상품은 사망 보장과 질병 치료비는 물론 간병 부담, 생활자금 공백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3대질병 진단 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하는 구조를 담아 종신보험의 기능을 확장했다.

주계약 가입 시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중증갑상선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확정 또는 50% 이상 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납입 완료 후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 시 상급종합병원 3대질병(제자리암·경계성종양 제외) 주요치료비와 3대질병 간병 인사용입원(2형 한정)을 새롭게 보장하도록 했다.

노후보장 기능도 강화했다. ‘3대질병연금 전환특약’의 연금전환 조건을 충족해 계약을 연금으로 전환한 뒤, 특약 약관에서 정한 3대질병 진단이 확정되면 10년간 매년 기본연금액의 3배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질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간병·생활비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1형 일반심사형 기준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10년납·20년납(2형은 2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간편심사형은 30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1형은 최대 70세, 2형은 최대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김주형 기자